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강해

AN EXPOSITION ON THE
APOSTLE PAUL'S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AND PHILEMON

[2판-수정중]

김효성

Hyosung Kim

Th.M., Ph.D.

옛신앙

oldfaith

2023

머리말

주 예수 그리스도(마 5:18; 요 10:35)와 사도 바울(갈 3:6; 딤후 3:16)의 증거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진술된 대로(1:8), 우리는 성경의 원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류가 없이 기록되었고 그 본문이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었다”고 믿는다. 이것은 교회의 전통적 견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성경의 헬라어 비잔틴 다수 사본들의 본문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 원본의 본문에 가장 가까운 본문으로 여전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본다.

성경은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활동들에도 유일한 규범이다. 오늘날처럼 다양한 풍조와 운동이 많은 영적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묵상하기를 원하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기를 원한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다(암 8:11).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오고 있다. 많은 설교와 성경강해가 있지만, 순수한 기독교 신앙 지식과 입장은 더 흐려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요구되는 성경 해석과 강해는 복잡하고 화려한 말잔치보다 성경 본문의 바른 뜻을 간단 명료하게 해석하고 잘 적용하는 것일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성경책 한 권으로 충분하다. 성경 주석이나 강해는 성경 본문의 바른 이해를 위한 작은 참고서에 불과하다. 성도는 각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 주석과 강해는 오직 참고로만 사용해야 할 것이다.

내용 목차

데살로니가전서

서론:	6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7
2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영광	12
3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	20
4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위로	24
5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갑작스러움	33

데살로니가후서

서론	48
1장: 재림의 엄위성	49
2장: 재림의 징조	58
3장: 재림 신앙의 균형	70

빌레몬서

서론	82
1장: 자발적인 선행	83

데살로니가전서

서론

데살로니가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1:1; 2:18). 이레니우스는 처음으로 본서를 언급하였고, 터툴리안도 본서를 인용하며 사도의 저작이라고 보았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처음으로 본서를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언급하였다.

본 서신의 **저작 연대**는 주후 50년 혹은 51년경일 것이며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본 서신을 썼던 것 같다(살전 3:6; 행 18:5).

데살로니가전서의 **특징적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는 서신이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구원론에 대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 골로새서는 기독교론에 대해 특징적으로 계시하듯이, 데살로니가전후서는 종말론에 대해 특징적으로 계시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재림의 소망. 2장, 재림 때의 영광. 3장, 재림을 위한 준비--사랑과 거룩함. 4장, 재림의 위로. 5장, 재림의 돌연성, 여러 가지 권면들.

본서에는 ‘주’라는 말이 25회 나온다(신약성경 전체에는 약 667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다. 또 본서에는 ‘형제들’이라는 말이 14회 나온다(‘형제’라는 말이 사도행전에는 57회, 서신서들에는 약 187회). ‘형제들’은 초대 교회에서 주의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의 매우 일반적 호칭이었다.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전통본문)¹⁾ 은혜와 평강[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실루아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실라를 가리킨다(행 17:4).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사도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와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성도들의 영적인 주소를 보인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원하였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가리키며 그것은 구원의 원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엡 2:8) 성화를 이룬다. 우리의 우리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고전 15:10).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도 성화도 영생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또 ‘평안’은 구원의 결과이다. 이 단어는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물질적 안정, 환경적 평안까지 포함하는 뜻이 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큰복이다.

[2-3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役事)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말은 중간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 . . 소망의 인내’라고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KJV, NASB).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

1) Byz **κ** A vg^{mss} (cop^{bv}) 등에 있음.

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이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사람 앞에 보이는 외식적인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진 진실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役事)가 있었다. ‘역사’라는 원어(에르곤 ἔργον)는 ‘행위’라는 뜻이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지만, 그것은 행위가 없는 믿음을 가리키지 않는다. 야고보서 2:17은 행위가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다. 참 믿음은 순종의 선한 행위가 있는 믿음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또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사랑으로 요약된다. 십계명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23에서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또 형제들을 위해 수고하며 선한 일에 힘쓸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되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광스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현실에서도 오래 참을 수 있다. 이 세상의 소망이 사람들에게 참는 마음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소망은 성도들에게 더욱 그러하다.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소식(요 3:16)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

이다. ‘형제들’이라는 말은 신약교회 안에서 높고 낮은 자가 없음을 보이는 사랑스런 명칭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선택하지 않으셨고 그 가운데서 일부분의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나머지를 죄 가운데 버려두셨음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복을 받은 자들이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른’이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를 말한다. 그것은 그들의 진실한 믿음의 생활이었다. 우선,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이 말로만 그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말한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일하지 않으시고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다.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일하셨고 사도 바울에게 큰 확신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셨다. 전도자가 자기도 믿지 않는 내용을 남에게 전하여 믿게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큰 확신을 가지고 증거한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결실을 가져왔던 것이다.

[6-8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道)[말씀]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나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이른]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나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너희 믿음]에 각처에 퍼지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없음]이니라.

‘많은 환난’은 처음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큰 방해거리이었을 것이

다. 마귀는 환난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구원을 방해한다. 그러나 구원이 단지 현세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주는 것이므로, 구원받는 자들은 많은 환난 중에서도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게 하심을 보인다. 또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일과 순종 생활과 또 전도하는 일에서 사도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구원은 사람의 변화이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상의 변화,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의 변화, 그의 인격과 삶의 변화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말한 것은 주의 말씀이 그들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소식이 각처에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자이었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진실한 성도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 주위에 널리 퍼져나갔다.

[9-10절]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예수님이시니라).

각처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 증거하는 바는 두 가지 요점이었다. 하나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를 섬기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종교의 가장 기본적 요소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 무지요 죄악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근본적 지식요 의(義)이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

님께서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우리의 근본적 믿음은 바로 그 분을 알고 그 분을 섬기는 데 있다. 그것이 영생이 된다(요 17:3).

다른 하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하심을 믿고 소망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그들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온 세상을 멸망시키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건지실 것을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재림, 마지막 심판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기본적 내용들이다. 우리도 이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 의심치 말고 믿고 확신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덕목이다(고전 13:13). 그것은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감사의 바른 이유이다. 우리는 단지 몸의 건강이나 일용할 양식과 물질적 여유나 사회적 평안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증표를 가지고 있었다. 또 그들의 소문은 주위에 널리 알려졌다. 하나님의 선택의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교훈에 대한 순종이다. 우리는 선택의 표를 가져야 한다.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장차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다. 그들은 과거에 우상을 섬겼었고 구주 예수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도 알지 못했었으나, 이제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구원도 확실해야 한다.

2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영광

1-12절,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이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파레스이아조마이 παραρησιάζομαι)[담대함을 얻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혔었다(행 16:22-23). 그러나 그는 많은 싸움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어(KJV, NASB)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3-5절] [이는] 우리의 권면은 간사(플라네 πλάνη)[거짓]에서나 부정(不淨)에서 난 것도 아니요 궤계[속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율계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께서] 증거하시느니라[증거하심이니라].

사도 바울 일행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말한 이유는 그들의 권면이 거짓이나 불결함이나 속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만일 그들의 권면이 순수하지 않았다면, 평안할 때에는 혹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환난 중에는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환난 중에 담대히 거짓된 것을 말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담대히 말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복음을 전하라는 명을 받은 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환난 중에 할 말이 없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였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자유로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은 현실의 어려운 환경을 거슬러 담대히 일할 수 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거짓이나 불결한 동기에서 일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다는 증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알고 있듯이 바울 일행이 아무 때에도 아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아침의 말을 하지 않았고 더러운 이익을 구하여 탐심의 탈을 쓰고 거짓되이 행동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증거하실 수 있는 바이었다.

[6-8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존중받을)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바울 일행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물론 그는 사도이므로 권위를 가질 수 있었고(Thayer, BDAG) 존중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나 다른 이들에게나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 세상의 것이 섞이지 않은 그들의 순수함을 보인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은 이 세상의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므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그들의 상급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있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공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샅근은 복음을 빙자하여 단지 이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혼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다.

바울 일행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한 영혼들을 위해 온유한 심령으로 자기들의 목숨까지 줄 마음으로 일하였다. 그들은 유모가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것과 같이 유순

한 자들이 되었고 영혼들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단지 말로만이 아니고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거워하는 심정으로 일했다. 여기에 복음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또 하나의 덕이 있다.

[9-10절] [이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전파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인 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도 바울은 한번 더 자신의 복음 증거의 사역에 대해 말한다. 그는 자신의 수고와 애쓴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사실을 언급한다. 이런 사실들은 그의 말씀 전파의 사역이 순수한 동기에서 이루어졌음을 증거한다. 그의 말씀 전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사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누를 끼쳤을 것이고 일하지 않고 편안히 섬김을 받는 자가 되려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다시 간추려 말하기를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이라고 한다.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은 한마디로 바르고 흠 없이 행한 사역이었다. 이것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증인인 요 하나님께서도 증인이 되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말씀 사역에 대해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의 뒤를 따를 교회의 많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이 본받을 만한 일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은 범사에 거룩하게 행하고 바르고 흠 없이 행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11-12절] 너희도 이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말씀 사역의 목적을 증거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함으로써 그들을 불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 사역의 목적이다.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말씀과 기도 중심, 믿음 중심, 의와 선과 진실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은 거짓이나 불결함이나 속임으로 하지 않았고 아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하거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하지도 않았다. 거짓말을 일삼고 아침하고 탐욕을 품고 사람의 영광이나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들이며 삯꾼들이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진실하고 거룩하며 검소하고 자족하며 겸손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할 덕이다. 우리는 진실하고 거룩하며 검소하고 자족하며 겸손해야 한다.

둘째로,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은 유순한 유모같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심정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하였고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 했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했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며 했다. 그는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유순한 유모같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같이 처신한 것이다. 오늘날 말씀 사역자들은 그를 본받아야 하고, 성도들은 그런 교훈을 잘 받아야 한다.

셋째로,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의 목표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과 그들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성경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고, 또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행하며 그의 계명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13-20절, 성도의 표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役事)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인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 이유는 그들이 그가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가 전한 진리 곧 오늘날 신약성경에 기록된 복음과 그것에 근거한 생활 교훈과 천국 소망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였다. 그는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받았으며, 그들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며, 또 그것이 옳다고 증거한 것이다. ‘진실로 그러하다’는 말은 그가 전한 복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 받은 것이 옳았다는 뜻이다. 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서 효력 있게 활동한다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들이 아니고 살아서 활동하는 말씀이다.

[14절]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되었음이니] [이는]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속에 역사한 증거는 그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것이 그들의 영적 주소임을 말한다. 교회들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들’이다. 모든 참된 교회들은 하나님께 속하며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교회들에게 최고의 권위, 최종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곧 신구약 66권의 성경말씀이다.

[15-16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그들 자신의](전통사본, syr^p)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의 죄악은 참으로 컸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사도 바울 일행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유대 땅에서 쫓아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했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도 바울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방인들 구원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항한 매우 큰 죄악이었다. 그들은 죄악을 항상 채우며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17-18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였고 그곳으로 가려고 한두 번 시도하기도 했다고 말한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는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제이다. 그런데 사단은 바울 일행의 길을 막았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탄의 방해와 시험을 경험한다. 우리가 장차 사탄을 이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때때로 우리의 삶과 봉사의 일들 속에 사탄의 방해와 시험을 허용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사탄의 방해와 시험을 염려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일에는 난관도 있지만, 우리가 진실히 충성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19-20절] [이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아니냐 함이니라.] [이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기쁨임이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기 위한 이유는 그들이 바울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날 일을 말한다. 지금 교회들은 지상에서 여러 가지 싸움 속에 있고 불완전하지만,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복음의 결실들이 드러나고 주님의 평가와 보상도 있을 것이다. 그때 참된 성도들은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영광과 기쁨이 될 것이다. 물론, 실제로 순종함이 없는 이름만 가진 교인들, 참으로 회개치 않은 자들은 목사와 교회의 근심거리이며 수치이지만, 참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 비록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목사와 교회의 기쁨과 면류관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그 말씀은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딤후 3:16). 특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주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갈 1:12).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하다가 범죄했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듣다가 범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받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아는 것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책이며 우리가 매우 귀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읽고 받아야 할 말씀이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참된 성도의 표가 된다. 실상, 이 말씀은 오늘날도 살아 있는 말씀이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夢事)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

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나?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나?”고 하였고(렘 23:28-29), 히브리서 4:12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말했다(행 20:32).

둘째로, 참된 교회는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믿는 자들을 쫓아내었고 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금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는 일이며 자기들의 죄를 항상 채우는 일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마침내 그들에게 임하였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도 그들의 나라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였다. 우리나라 교회들도 일제시대와 공산치하에서 고난을 당했었다. 그러나 우리는 경건과 도덕성을 지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된다. 그것이 성도의 참된 표이다.

셋째로, 참된 성도는 전도자들의 소망이며 기쁨이며 자랑과 영광이다. 사도 바울과 그 동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생활 교훈과 모든 진리들을 전했다. 사탄의 방해가 없지 않았지만, 사도들은 때때로 그들을 방문하여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 격려하였다. 그들은 전도의 결실이었고 교훈과 양육의 대상이었다.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좋은 성도,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은 전도자들의 큰 기쁨이었다.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목회와 교회 봉사의 선한 일들에 힘쓴 자들에게 좋은 상을 주실 것이 확실하다. 성도들이 그 증거가 될 것이다.

3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

[1-4절] 이따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요 우리의 동역자(전통 사본)²⁾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 [너희를](전통사본)³⁾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읽이}니라. [이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읽이}니라.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환난 중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보내어 교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게 하였다. 그는 디모데를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요 우리의 동역자’라고 표현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를 도와 성도들의 믿음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좋은 동역자 디모데가 있었다. 그는 그를 통해 그들을 굳게 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했다. 목사의 일차적 사명은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5-7절] 이따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따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원문)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결신자를 얻어 교회를 세우기만 하지

2) Byz syr^p 등에 있음.

3) Byz vg^{ms} syr^p 등에 있음.

않고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과 보존을 위하여 힘썼다. 사탄이 그들을 시험해 믿음을 잃게 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교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의 전도 사역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들로 하여금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이것이 목사의 임무이다. 감사하게도, 바울의 염려는 염려에 불과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었고 또 항상 바울 일행을 기억하고 간절히 보고자 했다. 그것은 바울 일행에게 위로가 되었다.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보다 목사에게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없다.

[8-10절] 그러므로 이는(원문, 영어성경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살 것임이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 안에 굳게 섰으므로 사도 바울 일행은 살 것 같았다. 약해졌던 그의 심정은 새 힘을 얻었다. 그는 그들의 믿음이 환난 중에서도 보존되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음을 크게 기뻐하며 그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며(히 12:2) 우리를 환난 중에서도 지키신다(시 91편). 그러므로 성도 개인이나 성도들을 위해 세움 받은 목사들은, 물론 자신과 교회의 믿음의 보존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를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었다. 이것은 목사의 사명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 위해 목사들을 교회에 보내시고 세우신다. 목사들은 이 사명

을 위해 먼저 자신이 믿음에 굳게 서고 온전해야 하며, 또 성경말씀의 충만함을 얻어 교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가 이 일을 위해 충성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11-1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길을 인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게 해주실 것을 기원하였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해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잠 16:1, 9).

또 사도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기원했다. 우리의 성화는 주께서 도우시며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 주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5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성화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짐을 말했다(8:13-14).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이다(요 13:34). 또 우리의 사랑은 주 안에서 성도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미쳐야 한다(마 5:44).

사도 바울은 또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주의 재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원하였다. 주의 재림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지만, 세상에서의 우리의 행위들에 대한 심판도 있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5:9-10,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

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의 심판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믿음에 굳게 서며 온전케 되어야 한다. 신앙생활에는 시험과 환난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과 환난 중에도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본문에는 ‘너희 믿음’이라는 말이 다섯 번 나온다(2, 5, 6, 7, 10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도 믿음에 굳게 서기를 소원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 목사들을 주시고(2, 10절) 또 친히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9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목사들의 성경적 설교들에 힘입어 믿음에 굳게 서고 온전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사랑의 풍성함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주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 또 우리는 주의 교훈대로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요 13:34; 마 5:44). 불법이 성행하므로 사랑이 식어지기 쉬운 말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주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한다. 죄는 온 세상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이유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표는 우리의 죄짓음과 거룩함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한마디로 거룩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거룩하고 흠 없는 삶, 곧 도덕적 완전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한다.

4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위로

1-12절, 성도의 본분

[1-2절]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 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전통사본에는 없음⁴⁾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 느니라. 앞이니라.

‘주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뜻이 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사도 바울에게서 교훈을 받았다. 사도 들을 통해 주신 교훈들은 오늘날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들 은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말씀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이 그 교훈대로 행하기를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한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지만, 인간편에서도 힘써야 한다. 성화 는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다. 베드로후서 1:10에서 사도 베드로도, “그 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하였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더욱 힘쓰라고 권면한 까닭은 그들의 교훈과 명령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성도는 사도 들의 교훈들과 명령들, 즉 신약성경의 교훈을 힘써 행해야 한다.

[3-4절] [이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 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토 헤아우투스 큐오스 크타스다이 τὸ ἑαυτοῦ σκεῦος κτᾶσθαι)[자신의 그릇을 취할 줄].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바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바를 더욱 많이 힘써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거룩함이기 때문이다. 죄가

4) Byz syr^p에는 없음.

세상의 근본 문제이므로 죄로부터의 거룩함은 모든 문제의 대답이다. ‘곧 음란을 버리고’라는 말씀은 거룩함이 무엇보다 음란, 곧 성적인 부도덕을 버리는 것임을 보인다. 미혼자들과 독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하고, 결혼한 자들은 바른 부부관계를 지켜야 한다. 바른 부부관계를 벗어나는 것이 거룩하지 못하고 불결한 것이며 곧 음란의 죄악이다.

‘자기의 아내 취할 줄[자신의 그릇을 취할 줄]이라는 말은 결혼을 가리킨다고 본다(Thayer, BDAG, 박윤선). 그러나 ‘그릇’이라는 말의 성경의 용법에 따라⁵⁾ ‘자신의 몸을 다스릴 줄’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크리스소스툼, 칼빈, NIV).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 안다’는 말은 음란에 떨어지지 않고 바른 결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성도는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취해서는 안 된다. 결혼 외의 성관계는 음란의 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큰 죄이다. 성도는 부부의 관계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켜야 한다.

[5-6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욕신의 욕망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伸冤)하여 주심[징벌하심] 이니라.

성도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대조된다. 이방인들은 욕신의 욕망을 좇아 음행하지만, 성도들은 부정당하고 과도한 욕망을 통제하고 죄악된 욕망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해야 한다. 결혼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유지해야 한다.

‘분수를 넘어서’라는 말은 ‘탈선’과 ‘외도(外道)’를 가리킨다. ‘형제를 해한다’는 말은 문맥상 성적인 탈선과 외도로 다른 형제에게 상처

5) ‘소년들의 그릇’(삼상 21:5), ‘택한 그릇’(행 9:15),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롬 9:22, 23), ‘질그릇’(고후 4:7), ‘귀히 쓰는 그릇’(딤후 2:21) 등.

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성도가 이러한 잘못에 떨어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주께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징벌은 무섭다. 경건한 다윗이 자기의 충성된 신하의 아내 밋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음죄와 살인죄 때문에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을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징벌은 무서웠다. 다윗의 가정에는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고, 동생이 이복형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까지 일어났었다(삼하 11장 이하). 범죄로 인해 다윗이 치룬 대가 즉 그가 받은 훈련은 매우 혹독하였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었다.

[7-8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不淨)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하심임이니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의 성령’이라는 표현은 요한일서 4:13에도 나오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오시는’ 영이심을 보이며, 또한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심을 보인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거룩한 영이시다.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감정과 거룩한 의지를 주신다. 우리의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생각과 마음의 원천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음란과 불결에 대해 보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구원하심이 그를 부정(不淨)케 하심이 아니요 그를 거룩케 하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은 분명하다. 그것은 죄인을 죄로부터 거룩케 하는 것이지, 죄와 부정(不淨)과 불결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멸시하고 저버린다면, 우리는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며 그 잘못은 매우 크다. 여기에 사람의 죄의 심각성이 있다. 죄는, 비록 인간 관계의 죄라 할지라도, 그 성격상 하나님께 대한 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죄는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에 대한 도전이며 침해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9-10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사도 바울은 또 형제 사랑에 관해 교훈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원어(테오디다토스 θεοδιδακτος)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교훈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율법에도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새 계명에도 있고 또 성령께서 사도들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심에도 있음을 보인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오늘날 성령의 감동 속에 하는 성경적 설교도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성경의 주요 교훈은 사랑이며 그 대상은 제한이 없다. 우리는 몇몇 사람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흘려 사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온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들을 사랑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이 더욱 많이 사랑할 것을 권면한다. 우리도 모든 성도들을 대하여 또 세월이 지날수록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

[11-12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같이 조용하여[조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바르게; properly (NASB), decently(BDAH)]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또 조용히 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 교훈한다. 우리는 꼭 필요하지 않은 말을 삼가며 조용한 생활을 해야 한다. 잠언 10:19,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우리는 손으로 자기 일을 해야 한다. 노동은 좋은 것이며 사람의 의무이다. 잠언 18:9,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敗家)하는 자의 형제니라.” 사람은 범죄한 이후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살도록 정해져 있다(창 3:19). 잠언 10:4-5,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성도가 손으로 자기 일을 하며 살 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바르고 단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또 궁핍함도 없을 것이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세상에서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결코 게으르거나 낭비하지 말고, 또 버는 것보다 적게 쓰며 노후를 위해 자녀에게 의존하지 말고 지혜롭게 저축도 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행하며 더욱 많이 힘써야 한다. 성화(聖化) 즉 거룩하고 선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우리의 거룩하고 선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지만, 사람편에서의 진실한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더욱 많이 힘써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음란을 버리고 부부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미혼자들과 독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자신을 절제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결혼한 자들은 부부관계를 저버리고 실수하며 외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참으로 무섭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대로 형제 사랑함을 힘써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본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조용히 손으로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도는 자기 직업의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하며 또 돈을 낭비하지 말고 절약하며 노후를 위해 지혜롭게 저축도 해야 한다.

13-18절, 자는 자들에 관하여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가리킨다.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말한 것은 죽은 자가 자는 자와 모습이 비슷하며 자는 자가 잠을 깨듯이 죽은 자도 주의 재림 때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죽은 성도의 몸의 부활을 믿는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몸의 부활과 천국과 영생이다.

‘소망 없는 다른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슬퍼한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믿는 가족이나 다른 성도의 죽음 앞에서 너무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한편으로는 이별이니까 슬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신 영광스런 천국에 들어가 부활 때까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기쁘고 복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14절] [이는] 우리가 예수[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오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먼저 죽은 성도들을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믿음의 기본 내용이며 우리의 부활 소망의 근거임을 보인다. ‘예수 안에서’라는 원문(디아 투 예수 διὰ τοῦ Ἰησοῦ)은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뜻으로 ‘자는 자들’에 걸리기보다 ‘데리고 오시리라’에 걸린다고 본다(RSV, ASV 난외주). 이 표현은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대속 사역, 즉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죄씻음과의 룩다 하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들을 그의 재림 때에 그로 말미암아 함께 데리고 오셔서 부활시키실 것이다.

[15절]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우리는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못할 것임이니라.

바울이 하나님께서 죽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데려오신다고 말한 이유는 그의 재림 때에 그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후서에서 예수님을 46회(살전--25회, 살후--21회) ‘주’라고 불렀다.⁶⁾

[16절] [이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일어날 것임이니라.

주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성도들을 먼저 부활시키실 것이다. ‘주께서 . . . 친히’라는 원어(아우토스 호 퀴리오스 αὐτὸς ὁ κύριος)는 이 세상에 오셨던 주, 곧 사람으로 태어나 약 33년 사시고 기적들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바로 그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강조한다.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라는 말씀은 주의 재림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건, 곧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일 것을 증거한다. 이것은 사도행전 1:11의 증거와 같다. 거기에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라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6) 신약성경 전체에 약 667회 사용되었다. J. B. Smith, *Greek-English Concordance to the NT*, p. 210.

이 은밀한 사건이 아니고 엄위하게 드러난 사건일 것을 나타낸다.

[17-18절]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아판테시스 ἀπαύτησις)[만나게, 맞이하게] 하 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두 번째 일은 살아 있는 성도들의 변화이다. 고린도전서 15:51-52,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아 있는 성도들은 변화되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흔히 ‘휴거’(rapture)라고 부른다. 예수께서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셨다(마 24:31).

주께서는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요한복음 14:2-3,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광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은 아무 부족이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이다. 주의 재림과 영광스런 부활의 몸은 성도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이다. 성도들은 이 진리와 소망으로 다른 성도의 죽음 앞에서 위로를 받는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사람에게에는 몸의 부활이 있다. 이것은 성도에게는 복된 소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사실이다. 주께서는 두 종류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5:28-29,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의 영혼은 불멸적이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악간의 행위에 대해 공의로 보응하기를 원하신다. 악인에 대한 심판과 지옥 형벌은 무서운 사실이지만, 성도에 대한 부활과 천국과 영생은 참으로 복된 소망이다. 죽은 성도의 부활은 복되다.

둘째로, 성도의 부활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의 부활은 많은 증인들에 의해 증거되었고 네 권의 복음서와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증거되어 있다. 그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근거일 뿐 아니라, 성도의 복된 부활의 첫열매이며 증거이다. 고린도전서 15:13-15,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셋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주 예수님의 재림의 진리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강조된 진리이다. 매 장에 재림의 진리가 계시되어 있다. 1:10,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2:19,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3:13,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5:23,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요 살아 있는 자들은 변화될 것이다. 그들은 다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후, 그들은 영광의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 것이다. 성도의 소망과 위로가 여기에 있다.

5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갑작스러움

1-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갑작스러움

[1-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아크리보스 ἀκριβώς)[정확히, 충분히] **않**이라.

‘때와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며 그때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이 변화되는 때이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에 관해 그들이 정확히,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의 날’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와 의 날’로 자주 언급된 날이다. 그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표현은 주님 자신의 표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재림의 갑작스러움을 나타낸다. 마태복음 24:42-43에 보면, 주께서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나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다.

[3절] [이느](전통사본)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못할 것임이나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안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주 예수께서도 재림 직전의 세상의 모습에 대하여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롯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다(마 24:37-38; 눅 17:26-28). 그 때 멸망이 홀연히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멸망의 갑작스러움은 마치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을 것이다. 홀연히 임하는

그 멸망은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세상의 종말, 곧 인류 역사의 대 종말이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한다. 사람의 개인의 죽음도 예상할 수 없이 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갑작스럽게 올 것이다.

[4-6절] [그러나(데 8€)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형제들아’라는 말은 본 서신에서 14회 나온다(1:4; 2:1, 9, 14, 17; 3:7; 4:1, 10, 13; 5:1, 4, 12, 14, 25). 이것은 매우 친근한 호칭이다.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도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부르셨다. 마태복음 28:10,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며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다.

본문은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만, 어두움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며,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안일하게 살다가 갑자기 멸망을 당하지만, 빛의 자녀들은 준비하며 살다가 재림을 맞이할 것이다.

본문은 이와 같이 빛의 아들과 어두움의 아들, 낮의 아들과 밤의 아들을 대조시킨다. 어두움의 아들과 밤의 아들은 세상 사람을 가리키며 구원받기 전의 우리의 상태를 가리킨다. 밤은 안 좋다. 밝은 것이 좋다. 범죄자들은 밤을 좋아하지만, 그것은 밤이 좋아서가 아니고 자기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일 뿐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한다. 그는 어두움의 아들이나 밤의 아들이 아니

고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어두움은 무지와 죄와 불행과 죽음을 가리키고, 빛은 지식과 의와 행복과 생명을 가리킨다.

그런데 빛의 아들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자기 말고 깨어 근신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잔다는 말은 비유적으로 죄를 짓고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깨어 근신한다는 것은 정상적 신앙생활,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가리킨다. 성도는 깨어 근신해야 한다.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힘써야 한다.

[7-10절]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취함 이니라. 그러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흥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이[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것임이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문은 깨어 근신하는 생활을 믿음, 사랑, 소망의 생활로 묘사한다. 믿음, 사랑, 소망은 성도의 정상적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될 것이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구원받은 자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도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는 데 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큰 복이다. ‘깨든지 자든지’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나 비유적인 의미(육신적인 삶과 죽음)가 다 가능하다. 성도의 정상적 신앙생활은 항상 주 안에 거하며 주와 함께 사는 것이다.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위로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라’는 원어(파라칼레이테 알렐루스 παρακαλεῖτε ἀλλήλους)는 4장 끝에 ‘서로 위로하라’는 말과 동일하다. 또 ‘피차 덕을 세우라’는 말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며 서로를 건립하라’는 뜻이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성도는 자신의 신앙 성장에만 힘쓸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 ‘너희가 하는 것같이 하라’는 말은 이 교훈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이 행하고 있는 바임을 보인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교훈이 그들의 현재 행위를 인정하면서 준 교훈임을 나타낸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권면할 때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믿음의 삶과 선한 행위를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주의 재림은 갑작스러울 것이다. 특히 멸망 받는 자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그 날을 맞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도적같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의 재림은, 비록 성경의 교훈대로 그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이지만, 갑작스런 사건일 것이다.

둘째로, 주의 재림은 성도들에게는 갑작스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로서 깨어 있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깨어 있는 삶이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 곧 정상적 신앙생활을 가리킨다.

셋째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함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 히브리서 3:12-13,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히브리서 10:24-25,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12-18절, 교회생활, 기쁨, 기도, 감사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수고한다’는 원어(코피아오 κοπιάω)는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며 ‘권한다’는 원어(누데테오 νουθετέω)는 ‘권한다, 교훈한다, 경계한다’는 뜻이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목사와 장로들을 말한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뜻이라고 본다. 목사와 장로들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와 교인들을 돌보며 다스리고 권하며 교훈하고 경계하는 자들이다. 교인들은 그들을 알고 그들의 직무를 이해해야 한다.

[13절]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디아 토 에르곤 아우튼 διὰ τὸ ἔργον αὐτῶν)[그들의 일 때문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의 일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며 권면하며 돌보는 사역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교인들을 돌아보는 일은 귀하고 중요한 일이다. 목회 사역이 이처럼 귀하므로 성도들은 목사와 장로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한다. 그들에 대한 성도들의 존경의 태도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존경의 태도일 것이다(마 10:40; 25:40, 45). 물론, 그들은 성경의 지식과 인격과 삶에 있어서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또 본문은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한다. 갈라디아서는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투기’ 등의 육신의 죄악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했고(5:19-21), 에베소서에는 “모든 겹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교훈했다(4:2-3). 교회는 언제나 분쟁하지 말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고 일치단합해야 한다.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아탁토스 ἄτακτος) [무질서한, 복종치 않는](BDAG) 자들을 권계하며(누데테오 νοουετέω)[권면,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낙심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아스데노스 ἀσθενής)[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우리는 서로 돌아봄으로써 다른 이의 성화(聖化)를 도우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 우리는 무질서한 자들을 권면하고 경계해야 한다. 교회에는 성경의 교훈을 복종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권면하고 경계해야 한다. 또 우리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해야 하며 심신으로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한다. 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 오래 참아야 한다. 우리의 신앙 인격의 성장과 성화(聖化)는 매우 더디고 불완전하며 각 사람은 다 그가 처한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듯이, 우리는 서로를 향해 오래 참고 또 모든 사람에게 대해 오래 참아야 한다.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보복하지 말아야 하고 성도 상호간에도 모든 사람에게와 또 불신자들에게도 항상 선을 행해야 한다. 주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걸은까지도 가지게 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마 5:39-40, 44).

[16절]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슬픔과 대조된다. 사람의 슬픔과 슬픈 일들은 죄의 결과이나, 죄사함과 구원의 결과는 기쁨이다. 성도의 기쁨의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변화

되어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성도의 기쁨이 그의 환경이나 육신의 조건 때문이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기 때문에 건강할 때뿐 아니라 아플 때도, 물질적 여유가 있을 때뿐 아니라 가난할 때도, 또 평안할 때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뻐해야 한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하다. 잠언 3:6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교훈한다.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때 감사의 기도를, 자신의 실수와 연약을 깨달을 때 고백의 기도를, 또 무엇이 필요할 때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특히 성도의 믿음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낙망치 않고 하는 기도로 나타난다. 믿음이 있는 자는 낙심치 않고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도는 때때로 힘든 일이지만, 성도에게 기도는 결코 짐스런 일이 아니고 복된 특권이다.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을 얻고 특히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로 해결함을 얻는다.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주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 이 세상과 온 우주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또한 주권적 섭리자이시다. 로마서 11:36, “이는 만물[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서 주의 피로 구속(救贖)하신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28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증거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 고난의 단련은 성도로 하여금 죄악된 일을 버리고 거룩하게 하며, 높은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감사해야 한다.

본문은 이런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며 특권이다.

분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교회생활을 잘 해야 한다. 성도들은 그들의 목사와 장로들을 그들의 일 때문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하고 교인들은 서로 화목하며 일치단합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복종치 않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을 권면하며 경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심신으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한다. 또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해야 한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된 특권이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천국과 영생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섭리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19-28절, 말씀, 선, 기록, 기도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억누르지 말라는 뜻이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먼저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구별해야 한다. 성령의 생각은 성경말씀에 합한 생각이다. 그러므로 성경말씀의 교훈대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때에는 우리가 성경의 일반적인 진리와 교훈 안에서 각 사람이 소신껏 행해야 한다. 로마서 14:5,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14:22,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한 사도행전 15장의 초대 예루살렘 총회처럼 우리는 때때로 많은 변론 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이 명확히 가르친 진리와 비진리, 정통 교리와 이단, 의와 불의, 선과 악은 우리도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또한 성령의 생각은 항상 질서 있는 생각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고린도전서 14:33,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맞지 않는 과분한 생각과, 공동체의 화평과 일치를 고려치 않는 무질서한 생각과, 남의 의견들을 잘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독선적 생각 등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라고 본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아야 한다.

[20절] 예언을 멸시치 말고.

사도 시대에는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 예언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교훈적 내용이다. 예언은 물론 장래 일에 대한 것

일 수도 있다. 교훈적 내용이든지 장래 일에 대한 것이든지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성도들이 그것을 멸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 예언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

사도들을 통해 주신 예언들은 신약성경에 충족하게 기록되었다. 오늘날 신구약 66권의 성경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교훈과 예언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딤후 3:16).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성경의 예언, 성경의 교리, 성경의 생활 교훈, 즉 성경적 설교를 멸시치 말고 존중하고 믿고 받고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카테케테 κατέχετε)[붙들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의 말들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을 검토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 잠언 14:15,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요한일서 4: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오늘날 사탄과 악령들의 활동이 많은,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 정통 교리와 이단, 의와 불의,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곧 의와 선과 진리와 정통 교리만을 붙잡아야 한다.

[22절] 악은 모든 모양(아포 판토스 에이두스 포네루 από παντός εἶδους ποιηρού)[모든 형태의 악]이라도 버리라.

우리는 모든 형태의 악, 모든 종류의 악을 다 버려야 한다. 우리는 이단의 악, 타협의 악, 세속주의의 악, 음란의 악, 미움의 악, 시기의 악, 분열의 악, 거짓의 악, 불충성의 악, 나태의 악 등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악한 생각도, 악한 말도, 악한 행위도 다 버려야 한다. 우리는 음란한 옷차림의 악, 육감적이고 광란적인 음악의 악도 버려야 한다.

[23절] 평강평안의 하나님[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안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평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롬 14:17). 죄는 불안과 불행을 가져왔으나, 의는 평안과 행복을 가져온다. ‘너희’라는 말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자들’을 가리킨다. 사람을 거룩케 하시는 일 즉 사람을 구원시키시고 거룩하게 변화되고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이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일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케 하시기를 기원하였다. 법적인 거룩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이미 이루어졌으나(히 10:10), 실제적 거룩도 필요하다.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 있다. 구원받은 성도의 현재의 삶은 성화 과정이다. 우리는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변화되어 죄성이 전혀 없는 완전 성화의 상태에 들어갈 때까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고후 7:1).

사도 바울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한다. 사람은 영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몸도 가진 존재이다. 사람의 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죄가 나쁜 것이다. ‘영과 혼’은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지 않고 같은 것을 가리킨다. 성경에서 영과 혼은 같은 것을 가리키는 두 개의 다른 말이며 구별 없이 사용된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영육으로 거룩하게 살다가 그를 맞이해야 한다. 영육의 거룩함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생활목표이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영생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리 속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빌 1:6). 하나님의

구원은 중도에 실패하는 구원이 아니다. 그는 죄인을 실제로 ‘구원하시는데’ 구주이시다. 그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법적으로 깨끗케 하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을 실제적으로도 흠과 점미 없는 거룩한 인격자들이 되게 하신다. 구원의 목표인 완전 성화는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변화로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써야 한다.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복음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일은 성도들의 열심 있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담임목사와 그의 협력자들을 위해, 또 목사의 설교와 그 외의 여러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므로 시시때때로 서로 문안해야 한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라는 말은 ‘거룩한 사랑으로’라는 뜻이다. 우리는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심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문안해야 한다. 세상은 슬픔과 고난이 많은 세상이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돌아보며 도와야 할 것이다.

[27-28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전통본문)]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⁸⁾

성도들은 성경책을 읽어야 하고 성경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성도의 의무이다. 성도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7) Byz A vg syr^p cop^{bo} arm 등에 있음.

8) Byz **κ** A vg syr^p cop^{bo} arm 등에 있음.

다면 그는 성도답지 못한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기를 원하며 거룩한 생활을 하기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배우며 성경 교훈을 다 믿고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성경의 예언과 교훈 안에서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바른 깨달음과 감동을 멸시하거나 억제하지 말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귀히 여기고 복종해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한다. 이것은 성도의 실제적 성화와 온전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방법이다. 성경 읽기와 듣기는 하나님의 뜻이며 성도의 의무이다.

둘째로, 우리는 모든 형태의 악을 버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고 선한 자가 되는 것이다. 십계명의 요점은 사랑이다. 성도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도우심을 알고 늘 기도하고 믿고 힘써야 한다. 우리가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연한 의무이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점점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넷째로, 교인들은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문안해야 한다. 교인들은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것과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교인들은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문안해야 한다. 주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그의 제자로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문안하고 격려해야 한다.

데살로니가후서

서론

데살로니가후서의 **저자**도 사도 바울이다(1:1; 3:17). 디다케는 본서를 인용하였고 터툴리안도 본서를 사도의 서신으로 인용했다. 이레니우스는 본서를 처음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언급하였다.

본 서신의 **저작 연대**는 주후 51년경일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에 나타난 데살로니가교회의 상태가 비슷하고 실라와 디모테가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살후 1:1) 등을 고려할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를 쓴 지 몇 달이 되기 전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의 **특징적 주제**도 데살로니가전서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본 서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많이 증거하고 있다. ‘주’라는 말이 21회 나온다.

데살로니가후서의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재림의 엄위성. 2장, 재림의 징조. 3장, 재림 신앙의 균형. 본서는 주께서 엄위한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고, 특히 재림의 징조로 ① 배교(apostasy, 교회의 전체적 변절)와 ② 불법의 사람(독재적 국가 혹은 인물)의 나타남을 든다. 본서는 마지막으로 재림 신앙과 소망을 가진 자들이 치우치지 말고 일상생활에도 충실해야 함을 교훈한다.

1장: 재림의 엄위성

1-4절, 사도 바울의 기원과 감사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실루아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실라’이다(행 15:22).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만난 제자로서 그의 동역자가 되었다(행 16:1-3; 17:14; 18:5; 19:22; 20:4).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시 설립되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세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을 증명하고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다(2, 3절). 그들의 전도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4절).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창조자의 의미이다. 이사야 64:8,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둘째는 구원자의 의미이다. 신명기 32:6, “우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사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야고보서 1:18, “그가 그 조물[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셋째는 보호자와 양육자와 공급자의 의미이다. 마태복음 6: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이고 또 성도 상호간의 친밀한 관계도 보인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한 가족이며 식구들이다.

신약성경에서 주로 예수께 사용된 ‘주’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의미로 약 667회 사용되었다. 구약의 ‘여호와’라는 명칭은 헬라어 70인역에서 퀴리오스['주']라고 번역되었다. ‘주’라는 단어는 온 세상의 주인, 왕, 통치자, 즉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크신 하나님’(딤후 2:10)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다(요일 5:20).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한 것은 구원이 연합의 관계임을 나타낸다. 죄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하였다. 죄인은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구원은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킨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으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존귀한 특권이며 놀라운 행복이다.

[2절] 하나님 [우리(전통본문)⁹⁾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이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서 매번 나오는 의미심장한 기도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다. 그것은 죄사함과 중생(重生)과 칭의(稱義)뿐 아니라, 계속적 용서와 성화와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 것을 포함한다. ‘평안’은 죄사함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을 비롯하여, 몸의 건강, 물질적 안정, 및 환경적 평안까지 포함한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휘페르아욱사노 ὑπεραυξάνω)[크게 자라고](KJV, NASB).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9) Byz ✠ A vg syr^p cop^{sa-mss} arm Origen^{lat} 등에 있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 때문이었다. 믿음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또 성경말씀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단지 어떤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 지식과 인격적 신뢰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 지식은 전적으로 성경에 근거한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다(마 13장). 땅에 심긴 씨는 싹을 내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받은 말씀과 믿음도 자란다. 어린 나무는 강한 바람을 견디기에 힘들지만, 다 자란 나무는 강한 바람도 잘 견디어 낸다. 그것은 깊이 내린 뿌리와 굵어진 나무 동치와 가지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도 성경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 견고한 지식을 가지고 순종으로 단련되면 어려운 시험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이 된다.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고린도전서 3:6-7,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성전 건립 혹은 교회 건립의 비유로도 표현된다. 성전의 건립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숙 4:6). 예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다(마 16:18). 물론 인간편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의 견고한 믿음은 성경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눅 1:1-4; 롬 10:17; 딤후 3:14).

두 번째 감사 이유는 그들의 사랑의 풍성함 때문이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을 풍성하게 실천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거룩한 교제와 서로를 돌아보는 수고를 통해 표현된다. 사랑하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히 10:24-25). 또 사랑은 수고

를 동반한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으로써 사랑을 실천하였다(행 2:44-45). 구제는 형제 사랑의 구체적 행위이다.

[4절] 그리고(호스테 ωστε)[그래서]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교회들 중에서 그들을 자랑했다. 우리는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받을 것도 각오해야 한다(딤후 3:12). 환난의 때에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계 13:10; 14:2). 주께서는 우리의 당하는 고난들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 또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과 복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후 4:17).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운 환난과 핍박을 잘 참아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을 구하며 누려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기를 기도해야 한다.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며 우리편에서도 성경 읽기와 기도, 교회의 공적 모임 참석, 순종 등에 힘써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서로간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하며 또 교우들 중의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고 병든 자들을 심방하고 위로 격려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행복에 비하면 잠깐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고난을 잘 견디어야 한다.

5-12절, 주께서 심판자로 재림하심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참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며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표이었다. 성도의 바른 신앙고백과 의롭고 선한 삶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일차적 증거이지만, 그가 핍박과 환난을 참고 견디는 것은 그것들보다도 더 확실하고 귀한 증거가 된다.

[6-9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¹⁰⁾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불로]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서는 공의의 심판자이시다(롬 2:6-8). 그는 성도들을 학대한 자들에게 고통으로 갚으시고 학대받은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것이다. 그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계시며(막 16:19; 눅 24:51) 거기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주 예수의 재림을 나타내는 단어는 ‘강림’(파루시아 παρουσία)과 ‘나타나심’(아포칼립시스 ἀποκάλυψις 혹은 에피파네이아 ἐπιφάνεια)인데, 본절에서는 ‘나타나심’이라는 말이 사용

10) Byz[†] & A TR 등에 있음.

되었다.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는 말은 ‘불로 형벌을 주시리라’(TR, MT, KJV)는 어귀로 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주의 재림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받는 날이다. 우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므로 그 외의 죄들을 짓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다(잠 9:10).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고전 1:23; 15:3). 그러나 이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벌을 받을 것이다(요 3:16, 36).

재림하시는 주 예수께서는 악인들에게 불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사도 베드로도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고 말하였다(벧후 3:6-7).

바울은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얼굴과 심판의 능력과 영광으로 악인들을 향하실 것이며,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물리침을 받고 성도들을 부활시킬 그의 힘의 영광을 경험치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 곧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다. 지옥은 악인들을 위해 예비된 장소이다. 마태복음 25:41, 46,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희는 영벌(永罰)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10절] 그 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자들 가운데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시는 날에 그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성도들은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찬송할 것이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기이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믿었던(벧전 1:8) 모든 신자들은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실제로 볼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며, 더욱이, 재림의 주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를 믿었다는 뜻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믿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다(엡 2:8-9).

(11-12절) 이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선한 뜻)과 믿음의 역사(役事)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리므로’라는 말은 앞의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전체에 관계된다고 본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공의의 심판이 되어 그런 자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믿는 성도들에게 재림의 주님을 영광과 찬송과 놀라움 가운데 영접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주의 재림이 이런 일들을 내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구원의 확실함을 위해 항상 기도하였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은 세 가지였다. 첫째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하여 성도의 표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고 본다(살전 1:2-4).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믿음의 행위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있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구원받은 자임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일을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했다. ‘모든 선을 기뻐함’이라는 원어(φρασιν 유도키안 아가도쉬네스 *pâsan eûdokían ágathosýnēs*)는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의미하든지(KJV), ‘선한 것에 대한 [그들의] 모든 소원’(NASB)을 의미할 것이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그의 뜻을 가리킬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시작하신 이 구원을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보면, 이 말은 선한 것에 대한 그들의 모든 소원을 가리키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심이다(엡 2:10; 딤후 2:14).

‘믿음의 일’이란 믿음의 행위를 가리킨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가 주신 믿음과 구원을 능력으로 온전케 하실 것이다. 우리는 선한 것에 대한 모든 소원과 믿음의 행위를 온전케 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힘 주심으로 가능하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

들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기를 기도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큰 구원이며(히 2:3) 완전한 구원이며(히 10:14) 영광스러운 구원이다(롬 8:30).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또한 성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의 구원은 영광스럽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의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잘 준비해야 한다. 바른 신앙고백과 순종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이지만,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바른 믿음을 지키며 참고 견디는 것은 그것들보다 더 확실하고 귀한 표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 사역을 믿고 성경 교훈대로 바르게 선하게 살아야 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잘 참고 견디어야 한다.

둘째로, 주께서 재림하신 후에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벌이 있을 것이다. 재림의 주께서는 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불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벌, 곧 지옥 불못의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과 지옥 불못의 벌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셋째로, 성도들에게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며 성경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경의 교훈대로 의롭고 선하게 사는 자이다. 재림의 주께서는 성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주의 재림의 날에 그들은 영광스럽고 완전하게 변화될 것이다.

2장: 재림의 징조

1-8절, 재림 직전의 두 가지 징조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그리스도]¹¹⁾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 하거나[마음이 쉬 동요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모이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때에 인자(人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30-31절).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계시나, 혹은 자기에게서 받았다 하는 말이나 편지를 통해서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렀다고 마음이 쉬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주의 재림 직전에 징조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도 그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셨었다(마 24장).

[3-4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아무도 너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배도(背道)(헤 아포스타시아 ἡ ἀποστασία)[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죄](전통본문)¹²⁾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처럼](전통사본)¹³⁾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11) Byz 본문임. 그러나 고대 사본들과 역본들은 ‘주’라고 되어 있음.

12) Byz A it^d vg syr^p Irenaeus^{lat} Origen^{gr-6/7} lat Tertullian 등이 그러함.

13) Byz syr^p Irenaeus^{arm} 등이 그러함.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 직전의 징조들 중에 특히 두 가지를 언급한다. 첫째는 배교(背敎)이며, 둘째는 죄의 사람의 나타남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렀다고 마음에 쉽게 동요하거나 당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첫 번째 징조는 배교이다. 배교(apostasy)는 ‘믿음의 변절 즉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역사상 교회가 믿음에서 떨어진 때가 있었다. 중세시대 천년은 신앙적으로 변절된 시대이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교회는 배교의 상태에 있었다. 그러므로 루터와 칼빈 같은 개혁자들은 로마 천주교회를 배교한 단체로 보았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개혁,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성경과 복음에 기초한 개신교회가 나타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세계 교회들 속에서 다시 배교(背敎) 곧 믿음의 변절이 있을 것이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백여년이 지난 오늘날, 개신교회는 또다시 배교의 상태에 떨어져 있다. 이것은 교회역사상 없었던 심각한 배교이다. 개신교회 대교단들의 대다수는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용납하였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신적 권위와 무오성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과 신성(神性), 기적들, 대속(代贖), 부활, 재림을 부정한다. 세계의 대다수 개신교단들은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적이거나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넓어진 교회’들이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개신교회들은 천주교회와의 화합과 교제와 일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포용주의적 입장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지도자들과 은사주의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은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시대이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분명한 징조가 아니고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또 하나의 징조는 죄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다. ‘죄의 사람’은 심히 부도덕한 자를 가리킨다. 그는 죄와 불법으로 가득한 자이다. 그는 결국 멸망할 것이므로 ‘멸망의 아들’로 표현된다. 또 그는 ‘대적하는 자’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복음 진리와 참된 교회들을 대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그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첫 번째 짐승, 곧 하나님을 훼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자를 가리킨다고 보인다(계 13:1-7). 그는 악한 정치가나 악한 나라일 것이다. 그는 자신을 높여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처럼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을 신격화시킬 강력한 독재자나 독재 국가일 것이다. 세계는 다시 한번 인간 숭배의 시대와 강력한 독재 국가의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5-7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였다. ‘불법의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은, 장차 죄의 사람이 나타나 공공연하게 행할 불법에 비교해 볼 때 아직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의 활동들이기 때문이다. 교회역사상 많은 죄의 사람들이 있었다. 옛날 로마 제국의 황제들로부터 현대의 히틀러나 스탈린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불법의 활동들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 최종적, 절정적 인물인 그 죄의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다. 아직 그의 나타남을 막는 자가 있다. 그는 성령이실 것이다. 그는 저 예언된 죄의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게 막고 있으시다.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막는 일을 놓으신다면, 그 죄의 사람, 즉 악한 독재자나 독재적 국가는 세상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전통본문은 생략함)¹⁴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저 불법자가 나타나면 주 예수님의 재림도 있을 것이다. 재림의 주께서는 강림하여 나타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 불법자를 죽이시고 그를 폐하실 것이다. ‘나타나심’이라는 말은 주의 재림을 묘사하는 말로서 그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실 것을 암시한다. 깊은 밤이 지나 새벽이 밝아오듯이, 극심한 배교와 불법의 때 후에 주께서 밝은 빛 가운데 오실 것이다. 장차 개신교회들은 천주교회와 연합할 것 같다. 개신교회의 세계적 협의체인 세계교회협의회(WCC)는 로마 천주교회(RCC)와 즐거이 교제하며 연합을 추구하고 있다. 그때 천주교회 교황은 다시 온 세계교회를 지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또 온 세계는 강력한 독재자 혹은 독재 국가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아마 공산주의 독재일 것이다. 그러나, 그때 주 예수께서는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악한 종교지도자나 악한 독재자를 멸하실 것이다(계 19:19-21).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쉬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평안 중에 충실히 살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주의 재림의 징조들을 기억해야 하며 특히 배교하는 일과 죄의 사람의 나타남을 기억해야 한다. 배교의 징조는 오늘날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천주교회(RCC)와의 교제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또 죄의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강력한 공산주의 독재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성도들은 이런 징조들을 주시해야 한다.

셋째로, 재림하시는 주 예수께서는 악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다 죽이시고 폐하실 것이다. 우리는 재림의 징조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14) Byz B cop^{bo-ms} Irenaeus^{gr} 등이 그러함.

9-12절, 사탄의 속임수

[9-10절] 악한 자의(후 οὖν)[그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불법[죄]의 사람의 활동에 대해 몇 가지로 증거한다.

첫째로, 죄의 사람의 활동의 근원은 사탄이다. 그는 사탄의 역사(役事)를 따라 올 것이다. 사탄은 악한 천사들 즉 악령들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우리도 믿기 전에는 그를 따라 살았었다.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며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엡 2:2).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요일 5:19).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용 곧 사탄은 짐승 곧 불법한 자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계 13:1-2).

둘째로, 죄의 사람의 활동 방법은 기적주의와 불의와 속임이다. 그는 우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행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22-23에서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마태복음 24:24에서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또 요한계시록 13:13, 15는 마지막 때에 사탄이 이적을 행하는 거짓된 종들을 사용할 것을 예언하였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

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리는 오늘날 은사주의를 주목하고 그것이 죄의 사람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신비한 은사 체험들을 구하지 말고 성경적 기독교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죄의 사람은 또한 불의와 모든 거짓으로 행할 것이다. 그는 최악된 일을 담대히 하는 자이다. 우리는 그에게서 도덕성과 양심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또 그는 속이는 일에 능숙할 것이다. 그와의 대화에는 진실이 없고 그와의 약속은 헛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도덕성이 없는 이념과 정치인들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공산주의는 하나님과 도덕을 부정하는 사상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사람과 세상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고 경제적 평등을 위해 먼저 노동자들이 세상을 지배해야 하고 이 사회주의 혁명에 이익이 되면 거짓말도 선이라고 본다.

셋째로, 죄의 사람의 활동 대상은 멸망하는 자들이다. 이 세상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는 구원 얻은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멸망하는 자들이다. 구원 얻은 자들은 만세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救贖)을 얻고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자들이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죄 중에 버려두셔서 그들의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받게 하신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은 적이 없다. 죄를 회개치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장차 나타날 저 죄의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활동할 것이다.

넷째로, 죄의 사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활동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의 사랑은 복음 진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킨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9-10,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멸망하는 자들은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죄의 사람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11-12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유혹미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를 거부할 뿐 아니라, 저 죄의 사람에게 속아 거짓된 것을 믿고 따르며 불의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섭리 가운데 허용하실 것이다. 진리는 성경에 밝히 계시된 이신칭의(以信稱義)의 복음 곧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복음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역사적 기독교이며 성경적 기독교이며 옛신앙이다. 그 개요는 개혁신학으로 정립되어 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은 성경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고 따를 것이다. 거짓 것이란 가짜 기독교, 성경 진리에서 이탈한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 속화된 기독교, 거짓 기적을 추구하는 은사주의 기독교이다. 오늘날의 적지 않은 교회들은 성경의 근본교리들을 지키지 않고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거나 포용하고, 이상숭배적 천주교회를 포용하고 심지어 이방종교들을 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심히 두렵게도, 이것은 교회들이 구원받은 표를 상실하고 멸망의 표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목사들과 성도들은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지켜야 한다.

멸망하는 자들은 또한 불의를 좋아한다. 사상과 윤리는 같이 간다. 진리를 저버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타락한다. 불신앙, 배교, 자유

주의, 신앙적 변질과 해이 등은 불의, 탐욕, 음행, 포용주의, 타협 등 윤리적 부패와 해이로 나아간다. 그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죄이며 멸망이다. 우리는 오늘 시대의 이런 풍조를 경계해야 한다.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죄의 사람의 활동들의 근원과 방법과 대상과 이유에 대해 증거한다. 죄의 사람의 활동들은 사탄의 활동에 뿌리를 두고, 그 방법은 거짓된 기적과 불의와 속임이며, 그 대상은 멸망하는 자들이고, 그 이유는 저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는다.

첫째로, 우리는 거짓된 기독교를 분별하고 배격해야 한다. 오늘날에는 진리를 부정하는 사이비 기독교회들이 많다. 우리는 역사 깊은 이단인 천주교회, 또 특히 19세기 중반에서부터 번성하기 시작한 각종 이단종파들, 또 20세기 초부터 퍼져나간 배교적 자유주의 신학, 타협적 복음주의, 혼란한 은사주의 등을 분별해야 한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은 진리에 대해 충실하지 않다. 그들은 신앙의 선진들이 강조했던 신앙의 근본 교리들을 저버리고 있다. 천주교회와 자유주의 신학이 포용되고 은사주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것들은 다 말세의 징조들이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거짓된 기독교를 배격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역사적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리와 바른 윤리이다. 우리는 바른 교리에 굳게 서야 한다.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 또 성경적 기독교의 교리들을 잘 정립한 사상 체계인 개혁신학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윤리적으로도 바로 서야 한다. 바른 믿음은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으로 나타나며 또 그러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로 깨어 있고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진리들을 다 믿고 개혁신앙을 지키고 또 성경의 교훈대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말세를 사는 참된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이다.

13-17절, 성경적 교훈을 지키라

[13-14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즉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구원해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근원과 그 구원의 방법과 그 구원의 목표에 대해 증거하였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근원을 두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즉 태초에, 창세 전에(엡 1:4) 우리를 택하셨다.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행위이다. 로마서 9:16, “[선택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요 3:5). 사도 바울은 디도서 3:4-5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했다. 구원(중생)은 성령의 거룩케 하시는 사역이다. 그러나 인간편에서 구원은 진리 곧 ‘구원의 복음’(엡 1:13)을 믿음으로 얻는다. 복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의 진리이다.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 안에서 부르신다.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이다. 그것은 성화의 완성 곧 부활의 영광을 가리킨다. 로마서 8:29-30,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3:20-21,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복이다. 하나님의 선택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도, 복음 진리를 믿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도, 또 장차 얻을 부활의 영광도 다 놀라운 복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한다.

[15절] 이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遺傳)[전통=전해 받은 교훈]을 지키라.

‘이리므로’라는 말은 ‘너희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므로’라는 뜻이다. 성도들의 성화(聖化) 생활을 위한 모든 교훈과 권면들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구원과 약속된 영광에 대하여 그들편에서 마땅히 응답하고 실천하고 행해야 할 바인 것이다.

우선, 우리는 진리의 지식과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지식과 믿음이 부족한 자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패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확신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신약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책을 주셨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음에 견고히 설 수 있다. 누가복음 1:4, “이는[누가복음을 쓴 목적은]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로마서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에베소서 6:10-11, 13-14,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대적하여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 .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또 우리는 굳게 서서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사도적 유전(遺傳), 곧 사도들을 통해 전해 받은 전통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말로’ 직접 들은 것이든지, ‘편지로’ 받은 것이든지 다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 사도들의 교훈은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기독교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엡 2:20).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도적 교훈은 개혁신학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것이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며 옛신앙이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구원의 복음 진리와 모든 교훈들은 불변적이고 영원하다.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以信稱義)로 표현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고 누가 다른 것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1:8-9). 또 요한계시록 22:18-19는 그 책에 기록된 종말 예언에 무엇을 가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도들이 교훈한 이 역사적 기독교, 개혁신학, 옛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 이것이 보수신앙의 본질이다. 기독교는 새 것을 만들어 내는 종교가 아니고 옛 것을 지키는 종교이다. 우리는 이 옛신앙을 귀히 여기며 보수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이탈한 사람들의 모든 전통들을 버려야 하고 성경을 떠난 모든 종류의 이단들을 용납하지 말고 배격해야 한다. 우리는 오직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즉 사도적, 전통적, 정통적 기독교만을 믿고 보수해야 한다.

[16-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말과 일에](전통사본)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세상의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곧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 그러나 세상은 요동하는 바다 같고 인생의 행로는 고생과 수고가 많으며 우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 불안하거나 낙심치 않기 위해 시시때때로 위로가 필요하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인 선한 생활을 힘써야 한다(엡 2:10; 딤후 2:14). 우리는 말과 행위에 있어서 선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우리를 굳게 하시기를 기원한 것이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하실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해야 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만세 전의 은혜의 선택에 근거하였고 성령의 거룩케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얻었고 장차 부활과 변화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답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진리의 지식과 믿음에 굳게 서서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역사적 기독교 신앙, 즉 성경적 교훈, 개혁신학, 옛신앙을 확신하고 보수해야 한다. 특히, 오늘날 교회들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상황에서 우리는 성경적 교훈을 지키는 보수 신앙과 보수적 바른 교회의 건립과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바로 알아야 한다. 또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개혁신학의 유산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적 교훈, 즉 전통적, 정통적 바른 교훈을 확인하고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우리를 굳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죄와 마귀의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때때로 심신으로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굳게 서 모든 선한 말과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3장: 재림 신앙의 균형

1-5절, 기도의 교제

[1-2절]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달음질하여(트레코 τρέχω)[빠르게 퍼지고](NASB, NIV)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나, 성도들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25,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 하라.”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위해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한다. 특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후원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은 두 가지 이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와 같이 빠르게 퍼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었다. 바울이 전한 주의 말씀은 그들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한 능력의 말씀이었다(살전 1:5). 이제 그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힘있게 역사하고 빠르게 퍼지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가리킬 것이다. 말씀의 힘있는 역사, 그것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말씀의 일꾼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가 교인들에게 부탁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울 일행을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것이었다. ‘무리하다’는 원어(αὐτο

포스 ἄτοπος)는 ‘악하다, 부당하다’는 뜻을 가진다(BDAG). 바울이 이런 기도를 부탁한 것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고 복음 전파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이었을 것이다. 주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도의 직무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직무를 완수하기를 원하고 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이 아님을 증거한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은 그를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요 6:66). 사도행전 28:24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여 날을 정하고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을 때 그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심지어 지금 믿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원하신 자가 아니면 어느 날 교회를 떠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15:13).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의 방해나 핍박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주께서 친히 가르치신 바이었고 사도들이 행한 바이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10:14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고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8:6-7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였을 때 바울은 옷을 떨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비록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을 완전히 포기해 버려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그에게 얽매이지 말고 또 다른 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3-4절] 주는 미쁘사(피스토스 πιστός)[신실하셔서]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너희가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도 행할 줄을(전통본문)¹⁵⁾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주께서 신실하셔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을 확신하였다. ‘굳게 하신다’는 말은 믿음의 견고함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자라고 견고케 하신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성장과 견고함은 다 신실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말하였다(빌 1:6). 또 히브리서 12:2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했다.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는 말에서, ‘악한 자에게서’라는 원어(아포 투 포네루 από τοῦ πονηροῦ)는 ‘악으로부터’(KJV)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신다. 구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잠시 연약에 떨어질지라도 그는 즉시 우리를 일깨우셔서 그 연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로 그 연약에서 떠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주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가 명한 것을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행할 줄을 확신하였다. 이것은 그가 ‘주 안에서’ 가진 확신이었다. 즉 그는 신실하신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15) Byz (B) vg (cop^{sa}) 등이 그러함.

을 굳게 하시고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혹은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말씀을 순종케 하실 것을 확신한 것이다. 사도들의 명령과 교훈들은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을 순종케 하실 것이다.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인도하시기를 기원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신 6:5). 잠언 4:23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헛된 데 두지 말고 선한 일에 두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신 사랑과 그가 우리 속에 일으키시는 사랑을 다 가리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9-10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고 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원수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인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인내와 또 우리 속에 주시는 인내를 다 가리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또 그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참게 도우신다. 하나님의 사랑

과 그리스도의 인내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덕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복음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성도들은 그들의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특히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속에 힘있게 역사하고 널리 퍼지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저도 여러분에게 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되 부족한 저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 힘있게 역사하고 또 빠르게 널리 퍼지도록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성도들을 굳게 하시고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며 성경의 교훈을 순종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죄성을 가진 우리 자신에게 맡겨져 있지 않다. 교회는 인간 목사들의 손 안에 있지 않다. 빌립보서 1:6,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24,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의 구원과 교회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구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셋째로,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 끊임 없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은 기도하지 않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기도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망치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성도의 믿음이 주위에 힘있게 전파되고 굳세어지는 것은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또한 목사의 말씀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또 다른 성도들의 강건함과 순종과 사랑과 인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더 흥왕할 것이다.

6-18절, 무질서한 형제들에 대한 교훈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아탁토스 ἀτάκτως)[무질서하게(KJV), 무법하게(NASB)]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遺傳)[교훈]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명하기를,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말한다. ‘명한다’는 말은 ‘권면한다’는 말보다 강한 뜻이다. 권면하는 바도 순종해야 하지만, 명령하는 바는 더욱 순종해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말은 이 명령을 인간 바울의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하는 것임을 보인다.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무법하게 행한다는 것은 ‘사도들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유전’(遺傳)이라는 말(파라도시스 παράδοσις)은 ‘받은 교훈’을 가리킨다. 그것은 교리적 내용과 윤리적 내용을 포함한다. 사도 바울은 2:15에서도 그들이 받은 교훈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遺傳)을 지키라.” 신약성경은 사도들의 유전 즉 사도들이 교훈한 내용이다. 신약성경의 교훈을 순종치 않는 것이 규모 없이 즉 무질서하게, 무법하게 행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사도들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었다. 당시에 그들은 교리적 문제에 있어서는 이상이 없었고 단지 윤리적 문제에 있어서 사도의 교훈을 순종치 않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고의적 불순종자들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였다. ‘떠나라’는 말은 교제의 단절을 의미한다. 어떤 형제가 성경의 교훈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

가 바른 신앙을 가진 형제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와 교제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사도의 명령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권면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다.

물론, 이것은 교회를 따로 세우라는 의미가 아니다. 교회 안에 한두 명의 형제의 잘못 때문에 새 교회를 따로 세워서 안 된다. 성경과 교회 헌법의 규정대로, 교회는 잘못을 행하는 자를 권면, 책망하고, 성찬 교제에서 그를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그를 제명, 출교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권징 순서이다. 칼빈의 말대로, 권징은 교회의 힘줄과 같다. 교회가 권징을 충실히 행할 때 교회는 튼튼한 교회가 되지만, 교회가 바른 권징을 포기하면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권징을 포기한 교회는, 비록 그 교회에 교인수가 많고 재정이 넉넉할지라도, 진리의 수호자와 전파자로서는 무능한 교회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전체적으로 배교적일 때도 있다. 물론, 교회가 전체적으로 배교하고 변질되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 안에는 참된 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쉽게 타락하지 않는다. 참된 성도들이 깨어 있기만 하면 그들은 교회의 타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권징을 포기한 교회는 서서히 타락할 것이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교회는 전체적으로 배교적이었고 진리를 붙드는 자들은 매우 소수이었다. 오늘날 기독교계도 16세기 종교개혁 때와 비슷하게 상당히 배교적이고 해이해져 있다. 세계적으로 역사적 대교단들은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넓어진 교회가 되었고 불신실하고 권징이 없는 교회가 되고 있다. 오늘날 성경적 교회들이 직면한 매우 중요한 한 문제는 ‘교제’의 문제이다.

[7-9절] [이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알기 때문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 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

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도의 교훈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에 관한 것이었다. 바울은 이런 명령을 위해 자신을 예로 들었다. 그는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주야로 수고하고 일했다. 그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이었고 친히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성도 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려 했다. 그것은 그가 물질적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연약한 교인들에게 시험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었다.

바울의 모범은 목사가 세상일을 하고 교회 사례를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성전 봉사자들인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십일조로 생활하게 정하셨고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의 십일조로 생활하게 정하셨다. 이와 같이 십일조 헌금은 구약시대에 성전 봉사자들의 생활비로 쓰였다. 그것이 성전 봉사에 전념하는 자들의 생활비를 위해 정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뜻하셨다. 고린도전서 9:14,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5:17-18,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교회의 전임 봉사자들은 교회에서 생활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감사히 받고, 교인들은 그들에게 의식주와 자녀 교육을 위해 필요 적절한 비용을 드려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의 모범은 단지 목사들과 교회 봉사자들이 전도 활동이나 목회 사역에서 복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처신해야 함을 보인다. 그들은 돈에 대해 초연해야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교인들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 특히 목사는 그가 전하고 가르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와 성경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자이어야 하며 그 귀한 진리를 세상의 돈과 바꾸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10-12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중용히[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우리는 일하지 않고 먹으려 해서는 안 된다. 노인들도 힘든 일은 못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청년들은 무슨 일이든지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무슨 일이나 죄 아닌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떳떳한 일이다.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된다. 게으른 자는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는 자이다.

데살로니가교회 안에는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었다. ‘일만 만드는 자들’(페리에르가조메노이 περιεργαζόμενοι)이라는 원어는 ‘남의 일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자들’(busybodies)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자기 일은 충실히 하지 않고 남의 일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우리는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남의 집은 자주 방문하지 말고 남에게 쓸데없이 자주 전화도 하지 말아야 한다. 조용히 일하라는 말은 야단스럽게 돌아다니며 여기저기에 나타나 남의 일이나 참견하지 말고 자기 일을 조용히, 충실히 하라는 뜻이다. 우리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

[13-15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시키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하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는 말은 열심히 일하며 사는 자들이 그

렇지 못한 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뜻이다. 갈라디아서 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본문은 ‘그를 지목하고 교제를 끊고 그를 부끄럽게 하라’고 말한다. 그러한 태도는 미움이 아니고 사랑이다. 그와 교제하고 그를 인정하면 그가 깨닫지 못하겠지만, 그와 교제를 끊는다면 그가 깨닫게 될 것이다. 잘못된 행동을 버려두면, 교회의 기강이 흐려지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면 잘될 것이다. 그가 그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그와의 교제를 끊고 그를 책망함으로써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키려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해야 한다.

[16-18절] 평강(평안)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편지마다의 표시)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이다. [아멘].¹⁶⁾

하나님께서서는 ‘평안의 주’이시다. 그는 우리에게 언제나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나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자이시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안을 주시기를 기원하였다. ‘일마다’라는 원어(엔 판티 트로포 $\epsilon\nu\ \pi\alpha\nu\tau\grave{\iota}\ \tau\rho\acute{o}\pi\omega$)는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이다. 평안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해야 한다.

‘편지마다 표적이기로’라는 말은 편지가 기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단지 ‘편지마다의 표시’라는 뜻이라고 본다. 바울은 다른 이로 하여금

16) Byz A it^d vg syr^p cop^{bo} arm 등에 있음.

편지를 쓰게 한 후에 편지 끝에 친필로 ‘바울’(파울로스 Παῦλος)이라고 서명하여 그것이 그가 쓴 편지임을 표시했던 것 같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사도적 교훈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신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도적 교훈들을 주께서 주신 교훈으로 알고 순종해야 한다. 본문에 담긴 사도적 교훈은 우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것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것과 일만 만드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무엇이든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소득을 얻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생활을 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사도적 교훈을 따르지 않는 형제들과 교제를 끊어야 한다. 이것도 본문에 담긴 사도적 교훈의 내용이다. 사도적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을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그것은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그런 자를 용납하면 사도적 교훈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교회는 무질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자를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해야 한다. 사도적 교훈은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것이므로 교리나 윤리나 다 힘써 지켜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 특히 자유주의자들, 천주교인들, 은사주의자들, 여자목사들, 또 기독교 록음악, 동성애 등을 용납지 말고 그런 자들이나 그런 것들을 용납하거나 그런 자들과 교제하는 자들(타협적 복음주의자들)도 용납지 말고 그들의 타협적 언행을 지적하고 책망해야 하고 만일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과도 교제를 끊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자들과 교제를 끊어야 한다. 이것이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믿고 사모해야 한다. 16절, “평안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하실지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알고 믿고 감사하며 그의 평안을 늘 사모하며 누리며 살아야 한다.

빌레몬서

서론

빌레몬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1, 19절). 3세기의 교부 오리겐은 본서를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인용했다. 본 서신의 **저작 연대**는 주후 60년경일 것이다. 본 서신은 골로새서와 연관성이 많으며 아마 골로새서와 거의 같은 때에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갇힌 자라고 표현하였다(1, 9, 10절).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짧은 서신이며 **그 특징적 주제와 주요 내용**은 자발적 선행이다. 14절,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自意)로[자발적으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이 교훈은 신약 성경 중 본 서신만이 주는 귀한 교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

빌레몬서는 또한 노예 제도의 극복이라는 중요한 내용도 담고 있다.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한다. 구약성경은 물론이고(창 16:1; 24:2, 35; 출 21장) 신약성경도 그러하다(엡 6:5-9; 골 3:22-4:1). 노예 제도의 극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16절) 관계로 변화가 가능했다. 본서는 그런 변화를 증거하였다. 아직 노예 제도 안에서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이어야 했고, 그 제도 자체는 점진적으로 극복되어야 했다. 오늘날에는 노예 제도가 없지만, 그러나 직장에서의 상하관계는 여전히 폐해가 없지 않다. 그러나 빌레몬서가 보이는 주 안에서 주인과 종의 용서와 사랑의 인격적 관계는 좋은 모범이며 교훈이 된다.

1장: 자발적인 선행

1-7절, 성도의 참된 교제

[1-2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데스미오스 δέσμιος)[갇힌 자, 죄수]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사랑을 받는 여자]¹⁷⁾ 압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다(1, 9, 10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의 증거요 구원받은 성도의 면류관이다.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부른다. ‘동역자’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고 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함께 일하는 자를 가리킨다. 그 일은 전도하고 목회하는 일과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포함한다. 빌레몬은 한 교회의 담임목사 즉 목회자이었던 것 같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고린도전서 3: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사랑을 받는 여자 압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인 것 같다. 아킵보는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킵보’라고 표현된다. 그는 목회의 일에 참여한 사역자이었던 것 같다. 바울은 골로새서 4:17에서 “아킵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고 말했었다. 모든 성도는 넓은 의미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우리는 사탄과 싸우며 사탄의 손 안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군사들이다.

‘네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씀은 초대교회가 처음에 어떤 성도의 집

17) Byz vg^{ms} (syr^p) cop^{sa-mss} 등이 그러함.

에서 모였음을 보인다. 로마서 16:5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원문에), 골로새서 4:15에 ‘눔바의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본문에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등 초대교회는 어떤 성도의 집에서 모였다. 구약교회와 달리, 신약교회는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를 중시한다. 건물은 교회의 모임과 교제와 활동을 위해 편리한 정도면 충분하다. 신약교회가 힘써야 할 일은 설교와 성경강해와 기도를 중심으로 한 성도들의 영적 교제이며, 나아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은 성도들에게 큰 복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휟의 결과이다. 성도는 구원받은 후에도 성화(聖化)[거룩하여짐]를 위해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또 평안은 마음의 평안과 몸의 건강, 또 경제적 안정과 환경적 평안까지 포함한다. 인생의 참된 복인 은혜와 평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온다.

[4-5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였다. 지금 감옥에서도 그는 감사를 쉬지 않는다. 우리도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18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였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빌레몬을 언급했다. 이것은 기도의 교통이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 정도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 중에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좋은 점을 감사하고 그에게 필요한 점을 간구하면서 기도로 교통해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다.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빌레몬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그의 사랑과 믿음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즉 주 예수께 대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그의 사랑 때문이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충성해야 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성도들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나의 형제와 자매로 여기며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다.

[6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전통사본)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다시 번역하면, “네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혹은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알게 되므로 효력 있게 되기를 원하노라.” ‘네 믿음의 교제’라는 말은 성도의 참된 교제가 무엇임을 보인다. 성도의 교제는 단지 세상적 놀이나 오락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운동이나 등산이나 소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교제도 아니다. 성도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 즉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며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교제이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3에서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교제이어야 한다.

이런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하신 속죄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알게 되며, 그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구원, 새 생명, 경건과 사랑의 새 마음가짐, 의, 영생, 천국 소망 등을 가리킬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고 굳세어진다.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아나 페파우타이 ἀναπέπρωται)[새 힘을 얻었으니] 내게[우리개](전통사본)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감사](전통사본)과 위로를 얻었노라.

빌레몬서 1장: 자발적인 선행

성도들의 마음은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다. 그것은 그의 참된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다. 성도들의 마음은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다른 성도들을 인하여 새 힘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유익이다. 사도 바울은, 비록 옥중의 고난 가운데서이지만,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다는 사실 때문에 또 빌레몬의 사랑 때문에 많은 감사와 위로를 얻었다. 오늘날도 진실한 성도들의 소식, 곧 참된 믿음의 열매의 소식과 말씀 순종의 소식을 듣는 것이 주의 종들에게 큰 감사와 위로가 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사도 바울 일행과 빌레몬 가족들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주 예수님 안에서 가지는 교제이다. 요한일서 1:3,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빌레몬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사랑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고 말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하였고 빌레몬은 다른 성도들을 사랑했다. 1절,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2절, “사랑을 받는 여자.” 또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함을 듣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였다(4-5절). 이것이 교회이다. 이것이 주께서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셋째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성도들은 새 힘을 얻었고 사도 바울 일행도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올렸으며 또 위로를 얻었다.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으니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감사와 위로를 얻었노라.” 성도들 간의 참 교제는 이와 같이 성도들 서로에게 큰 위로와 새 힘을 주는 유익이 많다.

8-25절, 자발적 선행

[8-10절] 이렇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고(16절)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왔던 것 같으나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보인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한다. 사도로서 무슨 선한 것을 명할 수 있겠으나, 그는 명하지 않고 사랑을 인해 간구한다. 많은 세월을 주를 위하여 수고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나이 많은 그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간구하는 그 간구를 빌레몬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11-14절]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를 받으라](전통본문).¹⁸⁾ 저는 내 심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자발적으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오네시모’라는 원어(오네시모스 *ὄνησιμος*)는 ‘유익한’이라는 뜻이다. 오네시모는 이전에 빌레몬에게 무익한 종이었으나 지금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변화이었다. 복음은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죄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익한 자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익한 자이다. 과거에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이었으나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다.

18) Byz C* it^d vg^{ww} st (cl) (cop^{sa} bo arm) 등에 있음.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있었다. 노예제도에서 좋은 주인의 소유물이었다. 출애굽기 21:21, “좋은 주인의 금전이라.” 오네시모는 이제 주인에게 돌려보내지고 있다. 전통사본에는 ‘돌려보내노니’라는 말 다음에, “저를 받으라”는 말이 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으라고 부탁한다. 과거에 오네시모가 한 일을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이 노사도의 부탁이니 빌레몬은 그를 받아들일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곧 이어 ‘그는 내 심복이라’고 표현한다. ‘심복’이라는 원어(스플랑크나 *σπλάγχνα*)는 ‘창자, 마음, 심정’ 등의 뜻이다.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며 사도 바울을 위한 충성된 수종자가 되었고 바울도 그를 진심으로 아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자기에게 계속 머물러 두어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 수종드는 자로 삼고자 하였으나, 모든 일을 바르게 처리하려고 하였다.

바울은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한다. 본절은 본서신에 계시된 중심 교훈이라고 보인다. 그것은 자발적 선행이라는 교훈이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필요한, 바울이 아끼는, 충성된 조수이었으나, 바울은 그의 소유권이 빌레몬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선한 일도 주인의 승낙 없이 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 그래서 바울은 주인의 승낙 아래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기를 원했던 것이다. 바울은 빌레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되게 하기를 원했다. 억지로 하는 선행도 선행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발적 선행을 기뻐하신다.

[15-16절]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집을 도망쳐 나온 종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가 잠시 주인을 떠났었으나, 이제 이 일을 인해 빌레몬은 그를 영원히 두게 되었다. 오네시모는 그에게 100년의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형제가 되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얻게 된 일이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들이며 형제들이요 자매들이다.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에게 종 이상이며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가 되었다. 바울에게 그러했다면,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빌레몬에게는 더 그러할 것이다. 여기에 노예제도의 변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옛 시대의 노예제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셨다. 어떤 사회제도의 개선이든지 혁명은 바람직한 방법론이 아니라고 본다. 혁명이 언제나 더 나은 사회의 보장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진적 사회의 개선을 원하셨다. 사회개선을 위하여 먼저 주인들, 윗사람들, 가진 자들의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 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사랑하는 형제 관계가 되게 하셨다.

[17-19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친구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계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값으려니와 너는[네가 이 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 좋게 말한다. 그는 빌레몬에게, 네가 나를 친구로 여긴다면, 오네시모를 나처럼 영접하라고 부탁한다. 바울이 주 안에서 형제로 귀히 여기는 오네시모를 그의 친구 빌레몬이 어떻게 외면하거나 박대할 수 있겠는가? 주의 사랑하는 종을 영접하는 것이 주를 영접하는 것이듯이, 바울의 사랑하는 조수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은 곧 바울을 영접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잘못을 범하고 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것 같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까지도 자신이 담당하겠다고

말한다. 바울은 친필로 이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가 진 빛이 있으면 자기가 갚겠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의 말에 대해 그가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이 자기에게 빛진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덧붙여 말한다. 그것은 영적인 빛 곧 그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억나게 한다. 그것은 결코 돈보다 못하지 않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세상의 금은보석들보다 더 귀하며, 그 말씀의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다.

[20-21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하므로 네게 썼으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빌레몬은 주 안에서 바울의 형제이다.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바울의 선한 뜻을 행함으로 그로 하여금 기쁨을 얻고 마음의 평안과 힘을 얻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진실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의 소원이다. 그들은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기를 소원한다.

바울은 빌레몬이 그의 말을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바울은 빌레몬이 그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고 말한다. 오늘날 동역자들 간의 관계는 어떠하며,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진실한 목사들은 어디에 있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어디에 있는가? 또 목사의 가르침보다 더 행할 성도들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좋은 목사들이 많이 있고, 좋은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소원한다.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자기를 위해 거처를 준비해 줄 것을 그에게 부탁하고, 그들의 기도로 그가 그들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거처를 준비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할 일이지만, 바울이 옥에서 나가 끌로세로 가고 못 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일을 이루시

는 이는 하나님입니다(잠 16:1, 9).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다(잠 3:6).

[23-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동역자들]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할지이다. [아멘.]¹⁹⁾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는 표현과 ‘나의 동역자들’이라는 표현은 주 안에서 귀한 말들이다. 주의 피로 구속(救贖) 받은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기 원하며, 또 필요하다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옥에 함께 갇히기도 원한다.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주를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영광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오네시모는 죄인이었고 무익한 종이었으나 바울을 통해 구원을 받고 변화되었다.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무익한 자이었으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유익한 자가 되었다. 구원은 죄인을 유익한 자가 되게 한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무익한 자가 되지 말고 선한 일에 쓰이는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것은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의 빛진 것을 탄감하며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을 포함한다. 주 안에서는 주인도 종도 형제자매이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교제해야 한다.

셋째로, 바울은 빌레몬의 선행이 억지가 아니고 자발적이게 되기를 원하였다. 구원의 목표는 선한 삶이고 선행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신앙 생활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무슨 선한 일이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예배도 찬양도 헌금도(고후 9:7) 봉사도 그러해야 한다.

19) Byz **κ** C vg syr^p cop^{bo} arm^{ms} 등에 있음.

저자 소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졸업 (B.A.).

총신대학 신학연구원[신학대학원] 졸업 (M.Div. equiv.).

미국, Faith Theological Seminary 졸업 (Th.M. in N.T.).

미국, Bob Jones University 대학원 졸업 (Ph.D. in Theology).

계약신학대학원 교수, 합정동교회 담임목사.

[역서] J. 그레섬 메이친, 신약개론, 신앙이란 무엇인가? 등 다수.

[저서] 구약성경강해 1, 2, 신약성경강해, 조직신학, 기독교교리개요, 기독교 윤리, 현대교회문제,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에큐메니칼운동 비평, 현대교회문제자료집, 기독교신앙입문, 천주교회비평 등.

데살로니가전후서 빌레몬서 강해

2000년 7월 30일 데살로니가전후서 1판

2000년 8월 13일 빌레몬서 1판

2020년 12월 1일 데살로나전후서 빌레몬서 2판

2023년 2월 27일 데살로나전후서 빌레몬서 2판 수정

저 자 김 효 성

발 행 처 옛신앙 출판사

Old-time Faith Press

www.olderfaith.net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1

합정동교회 내

02-334-8291, 9874

olderfaith@olderfaith.net

등록번호: 제10-1225호

ISBN 978-89-98821-63-0 03230

옛신앙출판사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출판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背敎)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출판사 서적 안내

1.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6판]. 204쪽. 4,000원.
2. 김효성,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2판]. 170쪽. 4,000원.
3. 김효성, **에큐메니칼운동 비평**. 158쪽. 6,000원.
4. 김효성, **복음주의 비평**. 193쪽. 6,000원.
5. 김효성, **천주교회 비평**. [2판]. 97쪽. 3,000원.
6. 김효성, **이단종파들**. [6판]. 70쪽. 700원.
7. 김효성, **공산주의 비평**. [6판]. 44쪽. 2,000원.
8. 김효성, **조직신학**. [2판]. 627쪽. 6,000원.
9. 김효성, **기독교 교리개요**. [10판]. 96쪽. 2,500원.
10. 김효성, **기독교 윤리**. [6판]. 240쪽. 4,500원.
11. 김효성, **신약성경 전통본문 옹호**. 166쪽. 4,000원.
12. 김효성, **기독교 신앙입문**. [10판]. 34쪽. 600원.
14. 김효성, **창세기 강해**. [3판]. 359쪽. 6,000원.
15. 김효성, **출애굽기 강해**. [2판]. 204쪽. 4,000원.
16. 김효성, **레위기 강해**. [3판]. 164쪽. 4,000원.
17. 김효성, **민수기 강해**. [2판]. 182쪽. 4,000원.
18. 김효성, **신명기 강해**. [2판]. 184쪽. 4,000원.
19. 김효성, **여호수아 사사기 룯기 강해**. [3판]. 216쪽. 4,000원.
20. 김효성, **사무엘서 강해**. [2판]. 233쪽. 4,000원.
21. 김효성, **열왕기 강해**. [2판]. 217쪽. 4,000원.
22. 김효성, **역대기 강해**. [2판]. 256쪽. 5,000원.
23. 김효성,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강해**. [2판]. 129쪽. 3,000원.
24. 김효성, **욥기 강해**. [2판]. 195쪽. 4,000원.
25. 김효성, **시편 강해**. [3판]. 703쪽. 10,000원.
26. 김효성, **잠언 강해**. [3판]. 623쪽. 10,000원.
27. 김효성, **전도서 강해**. [3판]. 84쪽. 3,000원.
28. 김효성, **아가사 강해**. [3판]. 88쪽. 3,000원.
29. 김효성, **이사야 강해**. [2판]. 398쪽. 6,000원.
30. 김효성, **예레미야 및 애가 강해**. [2판]. 359쪽. 6,000원.
31. 김효성, **에스겔 다니엘 강해**. [2판]. 293쪽. 6,000원.
32. 김효성, **소선지서 강해**. [2판]. 318쪽. 6,000원.
33. 김효성, **마태복음 강해**. [2판]. 340쪽. 6,000원.
34. 김효성, **마가복음 강해**. [3판]. 223쪽. 5,000원.
35. 김효성, **누가복음 강해**. [2판]. 373쪽. 6,000원.
36. 김효성, **요한복음 강해**. [3판]. 281쪽. 5,000원.
37. 김효성, **사도행전 강해**. [3판]. 236쪽. 4,000원.
38. 김효성, **로마서 강해**. [3판]. 145쪽. 4,000원.
39. 김효성, **고린도전서 강해**. [2판]. 122쪽. 3,000원.
40. 김효성, **고린도후서 강해**. [2판]. 100쪽. 3,000원.
41. 김효성,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강해**. [2판]. 169쪽. 4,000원.
42. 김효성, **빌립보서 골로새서 강해**. [2판]. 143쪽. 4,000원.
43. 김효성, **데살로니가전후서 빌레몬서 강해**. [2판]. 92쪽. 3,000원.
44. 김효성,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강해**. [2판]. 164쪽. 4,000원.
45. 김효성, **히브리서 강해**. [3판]. 109쪽. 3,000원.
46. 김효성,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강해**. [2판]. 145쪽. 4,000원.
47. 김효성, **요한1,2,3서 유다서 강해**. [2판]. 104쪽. 3,000원.
48. 김효성, **요한계시록 강해**. [2판]. 173쪽. 4,000원.

☆ 주문: oldfaith.net/07books.htm 전화: 02-334-8291

☆ 계좌: 우리은행 1005-604-140217 합정동교회